

##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스톨네이커의 해석\* †

송 하 석

**【요약문】** 이 글은 직설법 조건문에 대한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을 제시하고 옹호한다.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스톨네이커의 가능세계의 의미론은 표준적인 가능세계와 조건문에 대한 선택함수 의미론, 그리고 직설법적 조건문에만 적용되도록 선택함수를 제한하는 화용론적 원리로 구성된다. 그의 의미론에 따르면, 직설법적 조건문은 강한 진리조건을 갖기 때문에 논란없는 원리는 받아들여지지만, 이행원리가 보편적으로 성립한다는 것은 거부한다. 그럼에도 이행원리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함으로써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일반적인 직관을 잘 설명하는 이론임을 보인다. 또한 이 글은 스톨네이커의 이론에 대하여 제기되는 아담스주의적 비판과 기바드 현상의 문제에 대해서 답하고,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은 지나치게 맥락의존적이라는 비판에 답함으로써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가장 받아들일 만한 이론임을 주장한다.

**【주요어】** 질료적 조건문, 논란 없는 원리, 이행 원리, 기바드 현상, 아담스 논제, 맥락의존성.

\* 접수완료: 2009. 6. 25 심사 및 수정완료: 2009. 8. 10

† 2009년 하계 논리학회에서 이 논문이 발표될 때 유익한 논평을 주신 노호진 선생님과 이 논문을 심사해주신 두 분의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1. 들어가는 말

직설법적 조건문(Indicative conditionals)에 대한 철학적 논란은, 일상적으로 별 문제 없이 사용되는 직설법적 조건문이 진리함수적(truth-functional)이지 않으며, 따라서 외연적인 의미론(extensional semantics)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직설법적 조건문은 진리함수적인 질료적 조건문(material conditional)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쟁점은, 그것과 질료적 조건문 사이의 차이 혹은 관련성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결국 문제는 질료적 조건문과 구별되는 직설법적 조건문의 의미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이다. 직설법적 조건문은 진리조건을 갖는 명제를 표현하는가? 그렇다면 진리조건은 무엇인가? 또 만약 진리조건을 갖지 않는다면, 어떤 직설법적 조건문을 적절하게 주장할 주장조건은 무엇이고, 그것이 발화되었을 때, 그것을 수용할 만한 수용조건은 무엇인가?

직설법적 조건문이 진리함수적이지 않은 이유는 직설법적 조건문의 경우 그 전건과 후건 사이의 의미의 관련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어떤 직설법적 조건문의 전건과 후건이 모두 참이라고 해도 그 문장이 반드시 참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전건이 거짓인 직설법적 조건문은 질료적 조건문과 달리 항상 참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 중 하나는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이면, 그 직설법적 조건문은 거짓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직설법적 조건문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은 적어도 이 직관에 반해서는 안 된다.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한 또 하나의 직관적인 이해는 베넷(J. Bennett)이 지적하듯이, “(...) 직설법적 조건문은 오직 그것의 전건

이 참일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간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유용하고, 수용가능하며, 주장할 가치가 있다.”<sup>1)</sup>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직설법적 조건문의 전건이 참일 가능성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그러한 직설법적 조건문을 주장하거나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가장 상식적인 이해 중 하나는, 전건이 참이라고 할 경우에 그러한 조건 하에서 후건이 참임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직설법적 조건문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정보나 지식에 전건의 내용을 부가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전체 정보에서 전건이 거짓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후건의 내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전건의 내용이 부가되어 생겨난 새로운 정보 체계에서 후건의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직설법적 조건문의 주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전건이 거짓이라고 믿는 경우, 즉 전건이 우리의 전체 정보 체계와 정합적이지 않는 경우는 우리의 정보체계가 새롭게 조정되어 전건과 양립할 수 없다면, 그 조건적 주장은 부적절한 것이다. 그러므로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론은 이러한 직관과도 양립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직설법적 조건문과 질료적 조건문의 가장 중요한 차이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질료적 함축의 역설의 원리이다. 즉  $\sim A$ 로부터 질료적 조건문 ( $A \supset C$ )는 추론되지만, 직설법적 조건문 ( $A \rightarrow C$ )는 추론되지 않고, 또  $C$ 로부터 질료적 조건문 ( $A \supset C$ )는 추론되지만, 직설법적 조건문 ( $A \rightarrow C$ )는 추론되지 않기 때문에, 직설법적 조건문과 질료적 조건문은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철학자인 에징톤(D. Edgington)은 흥미로운 예를 통해서 직설법적 조건문을 질료적 조건문으로 해석할 수 없음을 보인다.<sup>2)</sup>

1) J. Bennett (2003), p. 17.

2) Edgington (1986), p. 187. (인용은 Jackson (1991)의 페이지임).

만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를 한다면 내 기도가 응  
 답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은 존재한다.

이 논증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  
 논증의 첫 번째 문장의 조건문을 질료적 조건문으로 해석하여 형  
 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sim G \supset \sim(P \supset A)\}, \sim P / \therefore G$$

에징톤의 위 논증을 이렇게 형식화 할 수 있다면, 그 논증은 타  
 당하게 된다. 결국 이 논증의 첫 번째 전제는 질료적 조건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따라서 직설법적 조건문과 질료적 조건문은  
 구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상당히 많은 철학자들이 직설법적 조건문을 질료적 조  
 건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직설법적 조건문이 질  
 료적 조건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음에 분명하다. 다시 말  
 해서 잭슨(F. Jackson)이 주장하는 것처럼, 직설법적 조건문은 질료  
 적 조건문을 함축한다는 논란 없는 원리(uncontested principle)와,  
 역으로 질료적 조건문은 직설법적 조건문을 함축한다는 이행 원리  
 (passage principle)가 성립한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들이 있다.<sup>3)</sup>

결국 직설법적 조건문을 질료적 조건문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면,  
 실질 함축의 역설의 원리가 직설법적 조건문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실질 함축의 역설의 원리를  
 받아들여서 직설법적 조건문과 질료적 조건문이 다르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논란 없는 원리나 이행 원리 중 적어도 하나가 성립하지

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Jackson (1987), 1장과 노호진 (2006) pp. 33-34을  
 보라.

않는다는 것을 보이고, 나아가서 질료적 조건문과는 구별되는 직설법적 조건문의 의미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의미론은 그 조건문이 진리조건을 갖는 명제를 표현하는지, 진리조건을 갖는다면 그 진리조건은 무엇인지, 또 진리조건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의 주장조건과 수용조건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러한 설명은 앞에서 지적인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일상적인 직관과 부합해야 하며, 직설법적 조건문과 질료적 조건문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스톨네이커(R. Stalnaker)의 가능세계 의미론이 위에서 지적인 직관과 일관되면서, 직설법적 조건문과 관련된 논리적인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직설법적 조건문은 질료적 조건문과 다르지만, 그럼에도 진리값을 갖는 명제를 표현하고, 논란 없는 원리는 성립하지만, 이행 원리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글의 목적은 스톨네이커의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의미론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비판에 응답하여 그 이론을 옹호하는 데 있다.

## 2. 스톨네이커의 가능세계 의미론

스톨네이커는 1968년의 논문, “조건문의 이론(A Theory of Conditionals)”과 1975년 의 논문, “직설법적 조건문(Indicative Conditionals)”에서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의미론을 제시한 후, 그에 대한 여러 비판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2005년 “조건적 명제와 조건적 주장(Conditional Propositions and Conditional Assertions)”을 발표한다. 그는 2005년의 논문에서, 자신의 조건문

에 대한 가능세계 의미론은 표준적인 가능세계와 조건문에 대한 선택함수(selection function) 의미론, 그리고 직설법적 조건문에만 적용되도록 선택함수를 화용론적으로 제한하는 화용론적 원리로 구성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선택함수란 토대가 되는 어떤 가능세계와 A라는 명제를 취해서, A가 참이면서 토대가 되는 가능세계와 가장 유사한 세계를 함수값으로 산출하는 함수이다. 다시 말해서, 선택함수  $f$ 는  $\beta$ 라는 가능세계와 A라는 명제를 취해서  $f(A, \beta)$ 를 산출하는 함수인데, 그 함수값은 A가 참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beta$ 와 가장 유사한 세계이다. 이 선택함수를 이용해서 그는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진리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A \rightarrow C$ )는  $\beta$ 에서 참이다 iff  $f(A, \beta)$ 에서 C가 참이다.<sup>4)</sup>

그러니까 토대가 되는 가능세계  $\beta$ 를 현실세계라고 하면, ( $A \rightarrow C$ )가 현실세계에서 참일 조건은, A가 참이라는 것 이외에는 현실세계와 가장 유사한 세계에서 C가 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선택함수에 의해서 선택된 세계는 전건이 참이 되는 세계이다. 그런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일상적인 직관과 부합하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설법적 조건문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에 대응하는 질료적 조건문이 참이라는 믿음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 $A \& \sim C$ )가 거짓이라는 정보만으로도 ( $A \rightarrow C$ )의 참을 정당하게 주장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스톨네이커의 선택함수 의미론은 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비판과 유사한 비판이 에징톤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는데, 이는

<sup>4)</sup> Stalnaker (2005), p. 10.

선언에서 조건으로의 논증(disjunction to conditional)으로 알려진 것이다. 예징톤은 스톨네이커의 가능세계 의미론에 따르면,

$$(A \vee B), \sim A \quad / \quad B$$

는 타당한 논증임을 설명할 수 있지만,

$$(A \vee B) \quad / \quad (\sim A \rightarrow B)$$

는 타당한 논증임을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에 따르면, 두 번째 논증이 타당하지 않은 데, 그 이유는 현실세계에서 A가 참인 경우, 전제(A ∨ B)는 참이지만 결론(∼A → B)은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A’가 “눈은 하얗다”를 ‘B’는 “잔디는 검다”를 나타낸다면 (A ∨ B)는 참이지만 (∼A → B)는 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스톨네이커는 두 번째 논증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이행 원리가 일반적으로 성립한다는 것을 거부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두 번째 논증이 타당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설명하는 장치가 바로 선택할 수 의미론에 대한 화용론적 제한이다. 스톨네이커의 화용론적 원리는 조건문을 발화하는 행위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원리에 따르면 하나의 주장은 어떤 맥락에서 발생함을 전제하고, 그 주장이 발생하는 맥락 집합은 화자와 청자가 자신들의 대화에서 관심을 갖고 논의하는 가능세계를 표상하는 것이다.<sup>5)</sup>

5) 하나의 주장이 맥락 의존적이라고 보는 점에서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은 카프란(D. Kaplan)의 이차원적 의미론(two dimensional semantics)과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카프란의 이차원적 의미론은 Kaplan (1989), pp. 481~563을 참고할 것.

그리고 그 맥락집합에 속하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참인 명제는 화자에 의해서 화용론적으로 참이라고 전제된다. 선택함수에 대한 스톨네이커의 화용론적 제한은 다음과 같다.

A가 맥락집합  $\delta$ 와 양립가능하다는 조건 하에서,  $\beta \in \delta$ 라면  $f(A, \beta) \in \delta$ 이다.<sup>6)</sup>

$\delta(A)$ 는 맥락집합  $\delta$ 에서 조건적 가정 A가 이루어짐으로써 초래되는 파생맥락인데,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delta(A) = \{f(A, \beta) \mid \beta \in \delta\}$$

즉  $\delta$ 에서 A가 참일 가능성이 있고, 토대 맥락  $\beta$ 가  $\delta$ 의 원소일 때, 파생맥락  $\delta(A)$ 는 A와 토대 맥락  $\beta$ 를 취해서 선택되는 선택함수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파생맥락의 집합은 토대맥락 집합의 모든 가정을 보존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함수에 대한 화용론적 제한은 질료적 조건문이 참이라는 사실만으로 직설법적 조건문이 참인 경우를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화자가 어떤 맥락 집합  $\gamma$ 에서  $(A \vee C)$ 를 주장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그 맥락집합  $\gamma$ 에서 화자는  $(\sim A \& \sim C)$ 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sim A \& C)$ 와  $(A \& \sim C)$ 는 가능한 선택지(live option)로 열어 놓을 것이다. 이제  $\gamma$ 를 토대맥락으로 하는 파생맥락  $\gamma(\sim A)$ 를 생각해보자.  $\gamma(\sim A)$ 는  $\gamma$ 의 모든 정보를 보존하기 때문에  $\gamma(\sim A)$ 에서 C는 주장될 수 있다. 결국  $\gamma$ 에서 “ $\sim A$ 라면 C이다”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톨네이커는 “선택함수 의미론과 선택함수에 대한 화용론적 제한을 결합함으로써, 직설법적 조건문에 의해서 표현되는 명제는 질료적 조건문보다 더 강하다는 논제와 질료적 조건문의 수용이 그에 대응하는 직설법적 조

<sup>6)</sup> Stalnaker (2005), p. 10.



건문의 수용을 위한 충분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화해시킬 수 있”  
 다고 주장하고, 이어서 “( $\sim A \vee B$ )와 같은 형식의 선언문이 어떤 맥락에서 수용된다면, 그 선택함수에 대한 화용론적 제한을 통해서 그에 대응하는 직설법적 조건문 ( $A \rightarrow B$ )가 그 맥락집합에 속하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참이라는 것을 보증한다”<sup>7)</sup>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 $A \vee C$ )로부터 ( $\sim A \rightarrow C$ )로의 추론을 명제 사이의 함축이라는 의미론적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발화행위와 관련된 화용론적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 추론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는 않지만, 합리적 추론(reasonable inference)이라고 주장한다.<sup>8)</sup>

그리하여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에 따르면, 직설법적 조건문은 질료적 조건문보다 강한 진리조건을 갖기 때문에 직설법적 조건문은 질료적 조건문을 함축한다는 논란 없는 원리는 성립하지만, 반대로 질료적 조건문이 직설법적 조건문을 함축한다는 이행의 원리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는 않다. 또한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은, 이행의 원리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추론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 3. 아담스 논제와 아담스주의자의 비판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아담스 논제와 관련된 것이다. 아담스 논제란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조건부 확률값과 같다는 것이다. 즉,

$$(AT) \Pr(A \rightarrow C) = \Pr(C|A)$$

<sup>7)</sup> Stalnaker (2005), p. 11.

<sup>8)</sup>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Stalnaker (1975)에 붙은 부록(appendix)을 보라.

그런데 루이스는 아담스 논제를 만족하는 그러한 명제는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즉 직설법적 조건문이 진리조건을 가져서 그 직설법적 조건문의 주장정도 (또는 수용정도)가 그 직설법적 조건문의 참일 믿음의 정도와 동일하다면, 아담스 논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sup>9)</sup> 이로부터 최원배와 노호진은 직설법적 조건문이 진리조건을 갖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0)</sup> 그리고 아담스주의를 거부하는 선우환도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이 아담스 논제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을 비판하고, 아담스 논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은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받아들일 만한 이론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11)</sup>

그런데 이와 같은 비판을 논증형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i)  $\Pr(X) = \Pr(C|A)$ 를 만족하는 X와 같은 명제는 없다.
- ii) 아담스 논제를 거부할 수 없다.
- iii) 그러므로  $(A \rightarrow C)$ 는 진리조건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이 논증을 비판하는 길은 다양하다. 선우환처럼 이 논증의 타당성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즉 아담스 논제를 받아들이지만, 루이스 증명의 귀결을  $(A \rightarrow C)$ 가 진리조건을 갖지만,  $(A \rightarrow C)$ 의 수용조건이  $(A \rightarrow C)$ 의 진리조건에 의해서 완전하게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길은 루이스의 증명의 원래의 의도 그대로 아담스 논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선우환은 아담스 논제가 갖는 강한 직관 때문에 거부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최원배도 아담스 논제를 거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

9) D. Lewis (1976) 참고.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와 설명은 최원배 (2005)를 보라.

10) 최원배 (2005), p. 79과 노호진 (2006), p. 49.

11) 선우환 (2008), p. 9.

다. 그런 까닭에 최원배는 루이스의 증명이 갖는 철학적 함축 중 하나를 조건문은 진리값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필자는 최원배의 주장 그대로 조건문의 확률은 조건부 확률일 수 없으므로 아담스 논제를 거부할 수 있고, 아담스 논제가 갖는 강한 직관은 조건부 확률에 대한 최원배의 설명에 의해서 그 이유를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원배는 조건문의 확률이 조건부 확률일 수 없는 이유를 조건부 확률의 특성에서 찾으면서 그 특성이 드러나는 증명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그 증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조건부 확률의 높고 낮음은 전건이나 전건의 부정의 확률의 높고 낮음과 별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전건의 확률이 높거나 낮아도 조건부 확률은 낮거나 높을 수 있다. (...) 조건부 확률에서 전건이 거짓이 되는 경우가 논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말해준다.<sup>12)</sup>

즉 직설법적 조건문( $A \rightarrow C$ )에 대한 강한 진리조건에 따르면, 조건문의 전건(A)이 거짓인 경우에는 조건문의 진리값은 어느 하나로 고정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 전건이 참인 경우 후건이 참인가 거짓인가에 따라 조건문의 진리값이 결정된다. 그런데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건부 확률의 확률값도 결국 조건적 정보(A)의 확률의 높고 낮음은 조건부 확률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직설법적 조건문은 오직 그것의 전건이 참일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간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유용하고, 수용가능하며, 주장할 가치가 있다는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중요한 직관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담스 논제가 거부하기 힘든, 직관적으로 호소력이 있는 논제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의

12) 최원배 (2005), pp. 78~79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담스 논제는 그 논제에 부합하는 명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루이스의 증명에 의해서 결국 생명이 다 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 아담스 논제에 대한 루이스의 증명의 귀결에 의존하여 직설법적 조건문이 진리조건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반론이 에징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에징톤은 직설법적 조건문이 갖는 다음 두 가지 속성에 주목한다.

- a)  $(A \vee B)$ 에 대한 최소한의 확실성이  $(\sim A \rightarrow B)$ 에 대한 확실성을 위해서 충분하다.
- b)  $\sim A$ 를 믿으면서 동시에  $(A \rightarrow B)$ 를 믿지 않는 것은 반드시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sup>13)</sup>

에징톤에 따르면, 직설법적 조건문이 진리함수적 조건문을 가지면 a)는 만족하지만 b)를 만족하지 못하고, 스톨네이커처럼 직설법적 조건문이 강한 진리조건을 갖는다면 b)는 만족하지만 a)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답변한 셈이다. a)는 질료적 조건문이 직설법적 조건문을 함축한다는 이행원리가 성립한다는 뜻인데,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은 이행원리가 보편적으로 성립한다고 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스톨네이커는 a)를 거부한다. 물론 스톨네이커의 강한 진리조건에 대한 의미론은 그럼에도 이행원리가 성립하는 합리적인 추론이 있음을 선택함수에 대한 화용론적 제한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 요컨대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은 a)가 보편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a)와 같은 추론이 합리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 이론이다.

<sup>13)</sup> Edington (1995), pp. 279~280.

#### 4. 기바드 현상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에 대하여 심각한 반론으로 여겨져 온 것 중 하나가 기바드 현상이다. 기바드(A. Gibbard)가 제시한 상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14)</sup>

영이와 선이가 포커를 하고 있는데, 선이가 최대한의 베팅을 했고 이제 영이가 콜을 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 석이가 선이의 카드를 훑쳐보았고 그것이 매우 좋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석이는 영이에게 신호를 통해서 선이의 카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 또한 훈이는 영이와 선이의 카드를 모두 훑쳐보았는데, 영이의 카드가 선이의 카드보다 낫다는 것을 알았다. 그 때 이상한 검색을 차린 선이가 석이와 훈이를 방에서 내보냈다. 석이와 훈이는 영이가 자신이 질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방에서 나온 석이와 훈이는 각각 다음과 같이 쓴 쪽지를 철이에게 건넸다.

석: 영이가 콜했다면, 영이는 이겼을 것이다. ( $Y \rightarrow W$ )

훈: 영이가 콜했다면, 영이는 졌을 것이다. ( $Y \rightarrow \neg W$ )

석이는 선이가 좋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이 선이의 카드를 영이에게 알려주었고, 영이는 자신이 질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결코 콜하지 않을 것임을 석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석이의 조건적 진술은 석이의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 있는 주장이다. 그리고 훈이는 영이와 선이의 카드를 모두 보았는데 선이의 카드가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할 만

<sup>14)</sup> Gibbard (1981), p. 226.

한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기바드 현상을 이용해서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을 비판하는 한 가지는, 철이는 비록 어떤 쪽지를 누가 자신에게 건네주었는지는 모른다고 해도 철이는 주어진 정보로부터 영이가 포기했을 것이라고 정당하게 추론할 수 있지만,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으로는 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에 따르면, 석이의 주장이 참인 경우는 선택함수가 Y가 참인 현실 세계와 가장 가까운 세계에서 W가 참인 가능세계를 함수값으로 산출하는 경우이고, 훈이의 주장이 참인 경우는 그러한 세계에서 W가 거짓인 가능세계가 함수값으로 산출되는 경우이다. 그러니까 철이는 석이의 주장( $Y \rightarrow W$ )과 훈이의 주장( $Y \rightarrow \sim W$ ) 중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라고 판단해야 할 것이고, 이 두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sim Y$ 를 추론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 다시 말해서 스톨네이커에 따르면, 그 두 주장은 서로 양립불가능한 것이고, 그 중 하나를 참으로 만드는 근거는 다른 하나를 거짓으로 만드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철이는 석이의 주장 근거나 훈이의 주장 근거 중 하나를 거부해야 하고, 따라서 이로부터 영이가 포기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없다고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은 이러한 추론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일까?

필자는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으로도 철이는 영이가 포기했을 것이라는 것을 정당하게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톨네이커에 따르면, 석이의 주장과 훈이의 주장은 각각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모두 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을 받아들여도 영이가 콜하지 않고 포기했을 것임을 철이가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

철이는 “영이가 선이의 카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과 “영이는 자신이 질 카드라는 것을 안다면 포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

다. 우선 영이가 질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영이는 선이의 카드를 알고 있으므로 자신이 질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따라서 영이는 콜하지 않고 포기할 것이다. 이제 영이가 이길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영이는 선이의 카드를 알고 있으므로 영이는 자신이 이길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Y \rightarrow W)$ 는 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석이 또는 훈이 중 한 사람이 철이에게  $(Y \rightarrow \sim W)$ 라는 쪽지를 주었다. 이 조건문의 맥락 의존성을 살펴봄으로써, 누가 그 쪽지를 건네주었고 그 조건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즉 만약 영이가 이길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Y \rightarrow \sim W)$ 의 쪽지를 건네 준 사람은 훈이일 수 없다. 훈이는 두 사람의 카드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이가 이길 카드를 가지고 있을 경우  $(Y \rightarrow \sim W)$ 라는 쪽지를 건네준 사람은 석이일 것이다. 그런데 석이는 영이가 양쪽 카드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석이도  $(Y \rightarrow \sim W)$ 라는 쪽지를 건네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영이가 이길 카드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영이의 카드는 선이의 카드보다 낮은 카드이고 따라서 영이는 콜하지 않고 포기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러한 추론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 점에서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으로는 철이가 주어진 정보로부터 “영이는 포기했다”는 정당한 추론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기바드 현상이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에 대한 중요한 비판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위와 같은 철이의 추론을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에 따르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석이나 훈이의 주장 중에 하나는 거짓이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스톨네이커는 다음과 같이 정식화 되는 조건적 무모순의 원리(Principle of conditional non-contradiction)를 받아들인다.

$$(CNC) \quad \sim\{(A \rightarrow C) \& (A \rightarrow \sim C)\}$$

스틀네이커는 이 원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석이의 조건문 ( $Y \rightarrow W$ )과 훈이의 조건문 ( $Y \rightarrow \sim W$ )은 동시에 참일 수 없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그런 이유로 기바드는 석이와 훈이의 진술이 명제를 표현하고 있다면 둘 모두 참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텐데, 이는 불가능하므로, 직설법적 조건문은 참이거나 거짓일 수 없고 따라서 명제를 표현하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그 진술을 하는 사람의 인식적 상태를 나타내는 조건적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예징톤도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직설법적 조건문은 진리값을 갖지 않고 명제를 표현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기바드의 사례에서 석이 문장과 훈이 문장 둘 중] 하나는 참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실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판단 모두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그들의 판단은 동시에 참일 수도 없고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으며, 어느 하나만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경우에 참과 거짓이라는 말은 평가의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sup>15)</sup>

그렇다면 직설법적 조건문이 명제를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스투네이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반 루이(R. van Rooy)는 카프란(D. Kaplan)의 이차원적 의미론(two dimensional semantics)을 받아들여서 직설법적 조건문이 명제를 표현한다는 입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기바드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6)</sup> 문장에 의해서 표현되는 명제는 맥락 의존적이라는 이차원적 의미론을 받아들이면, 조건문의 경우 관련된

<sup>15)</sup> Edgington (1997), p. 107.

<sup>16)</sup> van Rooy (1999), pp. 5-7.



맥락 변수는 유사한 가능세계를 선택하는 선택함수이다. 만약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선택함수가 다르다면, 한 사람은  $(A \rightarrow C)$ 가 참인 명제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은 거짓인 명제를 표현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기바드 현상에서 선택함수가 가능세계를 선택함에 있어서 유사성을 결정하는 요소를 영이와 선이가 가지고 있는 카드라고 하면  $(Y \rightarrow W)$ 는 거짓이고, 영이가 게임에서 콜하려는 성향에 의해서 선택된 가능세계의 유사성이 결정된다면  $(Y \rightarrow W)$ 는 참이 된다. 다시 말해서 영이와 선이가 가지고 있는 카드의 내용에 의해서 유사성을 결정하는 선택함수를  $g_h$ 라고 하고 영이의 성향에 의해서 유사성이 결정되는 선택함수를  $g_s$ 라고 하면,  $g_h(Y, \beta)$ 에서  $W$ 는 거짓이지만,  $g_s(Y, \beta)$ 에서  $W$ 는 참이 된다. 따라서  $g_h$ 에서  $(Y \rightarrow W)$ 는 거짓이지만,  $g_s$ 에서  $(Y \rightarrow W)$ 는 참이다. 즉 석이가  $(Y \rightarrow W)$ 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선택함수가  $g_s$ 이기 때문이고, 훈이가  $(Y \rightarrow \sim W)$ 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선택함수가  $g_h$ 이기 때문이다.

스톨네이커도 석이와 훈이의 조건문이 모두 참이라고 주장한다. 석이와 훈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부분적이고 그들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현실 상황은 두 사람의 믿음과 양립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석이는 영이가 질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게임을 포기하는 상황을 배제할 입장에 있지 않고, 실제로 석이는 그러한 상황을 배제하지 않지만, “영이가 콜했다면 이길 것이다”고 주장할 입장에 있고, 반대로 훈이는 “영이가 콜했다면 질 것이다”고 주장할 입장에 있는데, 문제는 두 사람의 주장 모두 자신이 가진 정보로부터 지지되는 근거 있는 주장이라는 점이다. 스톨네이커는 이에 대해서 석이의 조건문 해석과 관련된 선택함수와 훈이의 조건문을 해석할 때의 선택함수는 다르다고 말한다. 그는 “조건문의 참과 주장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각의 선택함수는 그것들

이 공유한다고 가정된 지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인 믿음이나 지식에 의해서도 제한되어야 한다”<sup>17)</sup>고 말한다. 두 사람이 진술한 조건문은 그들의 믿음 체계에 맥락 의존적(context-dependent on the speaker's belief system)이기 때문에 둘 모두 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맥락 의존적인 표현을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화자에 의해서 청자도 사용가능한 것이라고 전제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화자의 개인적인 믿음이나 지식은 그것이 공통의 근거가 아닌 경우에는 표현된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조건명제를 해석하기 위한 선택함수가 화자의 개인적인 믿음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전제와, 관련된 선택함수는 공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 사이에는 아무런 충돌도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선택함수가 화자의 개인적인 믿음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전제는 화자가 말하는 조건문은 다른 사람이 같은 조건문으로 같은 맥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어떤 것을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함축하지만, 그것이 화자의 조건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공적으로 사용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청자가 화자가 알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청자 자신도 맥락집합에서 주어진 가능세계로부터 선택된 세계는 화자가 그 가능세계에서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것을 알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공통의 근거가 된다.<sup>18)</sup>

<sup>17)</sup> Stanaker (2005), p. 15.

<sup>18)</sup> 이 논문의 심사자 중 한 분은 각 조건문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하는 가능세계가 다르다면, 즉 하나의 추론에서 동일한 전건을 가진 조건문이 여러 개 나올 때 참인 가능세계를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르게 잡아도 된다면, 추론의 타당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하였다. 예컨대 다음 같은 추론의 타당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A \rightarrow B, A \rightarrow C / A \rightarrow (B \vee C)$$

스틀네이커가 모든 조건문의 해석에서 고려해야 할 가능세계가 다르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기바드 현상과 같은 특이한 경우에, 즉  $(A \rightarrow C)$ 와

기바드의 문제가 제기된 이후, 에징톤이나 베넷 등도 그와 유사한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에징톤이 제시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마피아 보스와 그의 부하, A, B, C가 방에 함께 있는데, FBI 요원 X가 그들을 엿보고 있다. 그런데 X는 A가 방에서 나간 후에 보수가 누군가에게 명령을 한 사실을 관찰했다. 한편 또 다른 FBI 요원 Y가 그들을 엿보고 있는데, 그는 B가 방에서 나간 후에 보수가 누군가에게 명령을 하는 것을 보았다. 이로부터 X는 ‘C가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B가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한편, Y는 ‘C가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A가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한다.”<sup>19)</sup> 그리고 베넷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어떤 댐에 1차 관문(top gate)이 있고 그로부터 수로는 둘로 나뉘고, 각각의 수로에는 하나씩의 관문, 동쪽 관문과 서쪽 관문이 있다. 그런데 댐 조절 시스템은 세 개의 관문이 모두 열릴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X는 동쪽 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했고, Y는 서쪽 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로부터 X는 ‘1차관문이 열려있다면 물은 동쪽 수로로 흐른다’고 주장하고, Y는 ‘1차관문이 열려있다면, 물은 서쪽 수로로 흐른다’고 주장한다.”<sup>20)</sup>

에징톤이나 베넷의 사례는 기바드의 사례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기바드의 사례보다 설명하기 더 쉽다. 두 사례는 정확히 동일하므로 에징톤의 사례만 생각해보자. X와 Y의 공통의 지식은 보수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은 A, B, C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X는 A가 보수의 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

(A→C)가 모두 참인 것처럼 보이는 특이한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함수가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심사자가 지적한 위 논증은 스톨네이커도 당연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토대 맥락 β와 A를 취해서 산출하는 선택함수 f(A, β)에서 B와 C가 참이라면 동일한 선택함수에서 (B∨C)도 참일 것이기 때문이다.

<sup>19)</sup> Edginton (1997), p. 107

<sup>20)</sup> Bennett (2003), p. 85.

있고, Y는 B가 보수의 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즉 X와 Y는 서로 다른 인식 상태에 있고, 따라서 그들은 서로 다른 조건적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X가 한 조건적 진술을 해석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선택함수와 Y가 한 조건적 진술을 해석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선택함수는 다르다. 즉 X의 선택함수,  $f_x(\sim C, \beta)$ 는 C가 거짓인  $\beta$ 와 가장 유사한 세계인데, 이 세계에서는 A가 참이 아니고 B가 참인 반면, Y의 선택함수의 결과 얻어진 가능세계에서는 반대로 B가 참이 아니고 A가 참인 세계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X의 선택함수는  $f_x(\sim C, \beta)$ 이고, Y의 선택함수는  $f_y(\sim C, \beta)$ 로 다르고 그것은 바로 X와 Y의 인식 상태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X와 Y가 서로 다른 믿음 상태에 있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조건적 진술을 하게 하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믿음 내용이 궁극적으로 나의 추론을 위한 사용가능한 근거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X와 Y는 쉽게 명령을 받은 사람은 C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직설법적 조건문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맥락 의존적임을 인정해야 한다. 화용론적 제한은 공적으로 사용가능한 정보인 공통의 근거와 조건문의 해석 사이의 관계에만 관련된다. 그러나 기바드 현상은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해서 진리조건적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문은 화자의 개인적인 지식이나 믿음, 즉 공적으로 사용가능하지 않은 정보에도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스톨네이커는 “이러한 화자 상대성은 암묵적으로 직설법적 조건문이 화자의 인식 상황에 관한 것임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서로 상대방의 개인적인 믿음을 모르는 화자와 청자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음을 뜻하지 않고, 명제나 진리에 관한 표준적이지 않은 개념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말한다.<sup>21)</sup>

요컨대 직설법적 조건문은 화자의 인식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어떤 조건문을 주장할 위치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이 내가 주장하는 것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 조건문을 발화할 때 그 조건문을 수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스톨네이커는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주장조건과 수용조건을 구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다.

#### 4. 남은 문제들

지금까지 설명한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의 귀결은 직설법적 조건문으로 표현되는 명제는 화자의 믿음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조건문이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발화할 경우 다른 명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원에 사는 석이가 “나는 수원에 산다”라고 말함으로써 표현되는 명제와 서울에 사는 훈이가 동일한 문장을 발화함으로써 표현하는 명제는 서로 다른 것처럼, 직설법적 조건문도 발화자의 믿음 상태가 다르다면 다른 명제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직설법적 조건문을 색인어(indexicals)를 포함하는 문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sup>22)</sup>

그런데 기바드 현상은 색인어를 포함하는 문장에서 색인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21) Stalnaker (2005), p. 17.

22) 이런 입장을 명시적으로 취하는 대표적인 철학자는 기바드 이외에도 반 루이, 산토스(P. Santos) 등이 있다. 특히 산토스는 조건문의 맥락 의존성을 색인어를 포함하는 문장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여러 비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Santos (2008)을 참고할 것.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로 나에게 메신저로 “나 지금 잘 지내고 있어”라는 쪽지를 보내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그 쪽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에 의존한다. 다시 말해서 기바드의 현상은 어떤 문장의 해석과 관련된 맥락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위의 쪽지의 예도 보내진 문장이 어떤 명제를 표현하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쪽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은 지금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쪽지는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문장은 맥락에 따라 다른 명제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스탈네이커는 “[기바드 사례는] 정보의 합동(pooling of information)의 사례이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것을 알고 있지만, 의견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sup>23)</sup>, 그것은 조건문이 개인적인 믿음의 상태에 의존하여 주장되거나 수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조건문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는 화용론적 원리를 개인의 믿음 상태에까지 확대한다고 해도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이론이 해결해야 할 남은 문제라고 말한다.<sup>24)</sup>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의 범인은 X, Y, Z 중 한 사람이고, 그 사건은 단독 범행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모두에게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A는 살인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Y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B는 Z가 범인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A도 그 증거를 공유한다. 즉 Z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A와 B가 공통으로 갖는 지식이다. 이로부터 A는 개인적으로 X가 범인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반면에 B는 Z가 범인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 이외에, X가 범인이 아니라는 잘못된 증거를 가

<sup>23)</sup> Stalnaker (2005), p. 18.

<sup>24)</sup> Stalnaker (2005), p. 17.

지고 있다. 그래서 B는 범인은 Y라고 결론을 내린다. A와 B가 자신들이 범인이라고 믿은 사람을 상대방에게 말하지만 서로를 설득하지 못한다. 특히 A는 X가 범인이라는 것보다 Y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훨씬 더 강하게 믿는다. 그래서 X가 범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Z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에 대해서 의심할 것이다.

이 경우 B는 “우리가 누가 범인인가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X 또는 Y가 범인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공통의 지식이다. 따라서 당신이 X가 범인이라고 믿지만, 당신은 ‘X가 범인이 아니라면 Y가 범인이다’는 데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A는 추론을 위한 공통의 근거에는 동의하지만, B가 주장한 직설법적 조건문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A가 B의 조건적 주장, ( $\sim X \rightarrow Y$ )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스톨네이커의 진리조건적 설명에서 제시된 화용론적 원리에 대한 반례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 예는 공통의 근거에 P가 부가 될 경우 P가 Q를 함축한다면, 우리는 P라는 조건 하에서 Q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스톨네이커의 조건적 주장에 대한 설명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위의 살인 사건의 경우, A가 B의 조건문을 수용한다면, A는 분명히 조건적 지식에 대한 규범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믿음과 충돌하여 주장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수용하는 셈이 된다. 다시 말해서 A와 B가 가진 공통의 지식에 의하면,  $f(\sim X, \beta)$ 에서는 Y가 참이어야 할 터인데,  $f_A(\sim X, \beta)$ 에서 Y가 아니라 Z가 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스톨네이커가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는 지식이 모두 추론을 위한 공통의 근거라는 전제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sup>25)</sup> 즉

<sup>25)</sup> Stalnaker (2005), p. 17.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통의 지식과 양립할 수 없는 상황 중에도 대화에서 여전히 가능한 선택지(live option)일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 살인 사건의 경우, X가 범인이라는 것이 논쟁적이라는 것이 분명할 때, 그래서 X가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선택가능한 맥락이라고 한다면, A는 Z가 범인일 가능성을 다시 열어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즉 A는 “나는 X가 범인이라고 확신하지만, 만약 X가 범인이 아니라면, 범인이 Z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것이다. 요컨대 맥락 집합은, 그 맥락집합에 속하는 가능세계들과 양립가능한 어떤 조건에 대해서도,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의 조건적 지식과 양립할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그렇게 선택함수에 대한 화용론적 제한을 확장하면, 살인사건의 경우도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sup>26)</sup>

결론으로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스톨네이커의 맥락의존적 해석에 대해서 제기되는 비판을 살펴보자.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은 직설법적 조건문이 화자의 믿음에 따라 서로 다른 명제를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을 수 있다.<sup>27)</sup> 첫째, X와 Y가 같은 직설법적 조건문 ( $A \rightarrow B$ )를 발화할 경우 그들은 쉽게 서로가 참인 주장을 한다고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다른 믿음체계로부터 그러한 주장을 발화할 경우 스톨네이커는 그들의 동의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X와 Y가 서로 다른 믿음체계로부터 ( $A \rightarrow B$ )를 발화했을 경우, 그들은 서로 다른 명제를 표현하고 있는 셈이고, 그 중 어떤 어떤 명제를 발화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26) 스톨네이커가 제시한 살인의 사례는 에징톤과 베넷이 기바드 사례의 변형으로 제시한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

27) 이 비판은 2009년 7월 31일 논리학회 발표에서 노호진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다.



이 비판은 궁극적으로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에 따르면 선택함수가 개인적인 믿음에 의해 제한되므로 직설법적 조건문의 의미는 그 조건문을 발화하는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다른 명제를 표현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스톨네이커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비록 선택함수가 화자의 개인적인 믿음에 의해서 제한된다고 해도 그 조건문을 청자가 공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28)</sup> 직설법적 조건문의 의미가 발화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믿음에 의해서 다른 명제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발화자와 청자가 동의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5. 맺는 말

스톨네이커의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의미론은 그 조건문에 대

<sup>28)</sup> 이 문제를 다시 기바드 현상을 통해서 생각해보자.  $\alpha$ ,  $\beta$ ,  $\gamma$ 의 세 개의 가능세계를 가정하자.  $\alpha$ 는 훈이가 영이가 질 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아는 세계, 즉 현실세계이고,  $\beta$ 는 훈이가 영이가 이길 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아는 가능세계,  $\gamma$ 는 훈이가 영이가 이길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질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가능세계라고 하자. 훈이의 조건적 진술을 해석하는 데 관련된 선택함수를  $f_h$ 라고 하자. 세 개의 세계는 각각 철이의 지식과 양립가능하고, 훈이의 쪽지가 철이에게 건네지는 맥락과도 양립가능하다. 그러나 철이가  $\alpha$ 가 현실세계라는 것을 모르고 훈이도 그것을 가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철이는  $f_h(Y, \alpha)$ 은  $W$ 가 거짓인 가능세계이고  $f_h(Y, \beta)$ 은  $W$ 가 참이 되는 가능세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바로 공통의 근거이다. 철이가 훈이의 쪽지를 건네받을 때, 철이는 그것을 이해할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는  $\beta$ 를 배제한다. 결국 철이는  $Y$ 와  $W$ 가 동시에 참인 가능세계를 배제한다. 또  $\gamma$ 에서는 훈이는  $(Y \& W)$ 이나  $(Y \& \sim W)$ 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훈이의 조건적 진술  $(Y \rightarrow \sim W)$ 이 참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 그러나 철이는 여전히 훈이가  $\gamma$ 를 현실세계라고 여긴다면 그러한 조건적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근거에서  $\gamma$ 가 현실세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여러 가지 직관에 부합하는 이론이라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그 의미론은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은 질료적 조건문의 진리조건보다 강하기 때문에 직설법적 조건문의 참은 질료적 조건문의 참을 보장하지만, 즉 논란 없는 원리는 성립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에 따르면, 이행 원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행 원리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선택함수에 대한 화용론적 제한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스톨네이커의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의미론은 지나치게 맥락 의존적인 해석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즉 다른 인식적 상태에 있는 두 사람은 각각  $(A \rightarrow C)$ 와  $(A \rightarrow \sim C)$ 를 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점이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바드의 현상은 스톨네이커의 의미론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직설법적 조건문이 갖는 성질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기바드의 현상이 보여주는 것은, 직설법적 조건문이 그 성질상 맥락의존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시어를 포함하는 문장이 맥락의존적이지만 명제를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직설법적 조건문은 맥락의존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문장이지만, 그것이 명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

결론적으로 직설법적 조건문은 명제를 표현하는 문장이며, 그 명제의 진리값은 선택함수라는 맥락에 의존하여 결정된다는 것이 스톨네이커의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의미론의 핵심이고, 직설법적 조건문을 맥락의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직설법적 조건문의 성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노호진(2006), “조건문에 관한 성향적 분석”, 『논리연구』 vol. 9, no. 2, pp. 31~57.
- 선우환(2008), “직설법적 조건문은 진리조건을 가지지 않는가?”, 『철학적 분석』 vol. 18, pp. 1~35.
- 이병덕(2008),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추론주의적 설명”, 『철학적 분석』 vol. 17, pp. 135~164.
- 최원배(2005), “조건부 확률과 조건문의 확률”, 『논리연구』 vol. 8, no. 2, pp. 59~84.
- Bennett, J.(2003), *A Philosophical Guide to Conditiona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dgington, D.(1986), “Do Conditionals Have Truth-conditions?”, reprinted in F. Jackson (1991), pp. 176~201.
- \_\_\_\_\_.(1995), “On Conditionals”, *Mind*, 104, pp. 235~329.
- \_\_\_\_\_.(1997), “Truth, Objectivity, Counterfactual and Gibbard”, *Mind* 106, pp. 107~116.
- Gibbard, A.(1981), “Two Recent Theories of Conditionals”, reprinted in W. Harper et al. (eds.) *Ifs*. Dordrecht: D. Reidel. pp. 211~248.
- Jackson, F.(1987), *Conditionals*, Oxford: Basil Blackwell.
- \_\_\_\_\_.(ed) (1991), *Conditiona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aplan, D.(1989), “Demonstratives” in J. Almong et als (eds.) *Themes from Kapl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481~563.

- Lewis, D.(1976), "Probabilities of Conditionals and Conditional Probabilities", reprinted in Jackson (1991). pp. 76~101.
- Santos, P.(2008), "Context-sensitivity and (indicative) Conditionals", *Disputatio*, vol. II, no. 24. pp. 295~315.
- Stalnaker, R.(1968), "A Theory of Conditionals", reprinted in W. Harper et al. (eds.) *Ifs*. Dordrecht: D. Reidel. pp. 98~112.
- \_\_\_\_\_.(1975), "Indicative Conditionals", reprinted in F. Jackson (1991), pp. 136~154.
- \_\_\_\_\_.(2005), "Conditional Propositions and Conditional Assertions", in *New Work on Modality,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and Philosophy*, vol. 51. pp. 1~19.
- van Rooy, R.(1999), "Gibbard's problem: The Context Dependence of Conditional Statements", in <http://citeseerx.ist.psu.edu/508957.html>

아주대학교 기초교육 대학

Email: song1959@hanmail.net; hasong@ajou.ac.kr

---

## Stalnaker's Theory of Indicative Conditionals

Hasuk Song

---

This paper defends Stalnaker's theory of indicative conditionals. His theory consists of selection functions and pragmatic constraints. The selection function takes a certain possible world(W) and a proposition(A) to yield a possible world that is similar to W and in which A is true. And the pragmatic constraints plays role to make selection functions apply just to indicative conditionals. According to Stalnaker, as indicative conditionals has strong truth-value, uncontested principle always holds but passage principle does not always hold. However, his theory can explain why passage principle sometimes holds by means of pragmatic constraints.

Also, this paper argues that Stalnaker's theory is the most acceptable one among others, by replying to criticisms suggested by Adamsians and the problem raised by Gibbard and other criticisms.

**[Key Words]** Material Conditional, Uncontested Principle, Passage Principle, Gibbard's Phenomenon, Adam's Thesis, Context-dependence